

‘연꽃 스님’ 만 공경하면 ‘폐종망교’

박성배 교수 ‘몸과 몸짓의 논리’ 서 불교계 현실 비판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원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요즘 불교계를 들여다보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

적지 않은 불자들이 이 같은 말을 한다. 불자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불만족’을 갖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불만의 실제와 대안을 명쾌히 내놓을 논리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날이 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현실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 병이 있는 것은 분명하데 진단이 명쾌하지 않으니 처방도 흐리멍덩할 수밖에 없다.

박성배 교수(뉴욕주립대 동양학과·사 진가 한국불교의 자화상이 왜 그리 일그러 졌는가)를 ‘몸과 몸짓’의 논리로 밝혔다. 철학 에세이집 <몸과 몸짓의 논리>는 박 교수가 불교와 인연을 맺고 출가와 환속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느낀 점들, 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하 하는 마음, 미국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 이질성과 동질감 등을 적나라하게 풀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불자들의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 버릴 만치 통렬하다.

몸과 몸짓이란 다른 아닌 ‘체(體)와 용(用)’이다. ‘체와 용’은 동양사상에 있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살이의 현상을 들여다보는 데 즐겨차게 적용되어 온 잣대다. 박 교수는 이 잣대를 통해 한국불교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사람들은 곧잘 자기의 몸이 허약해 있는 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몸짓만 튼튼한 듯이 꾸미려 한다”는 현실에서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살폈고 인간살이의 모순을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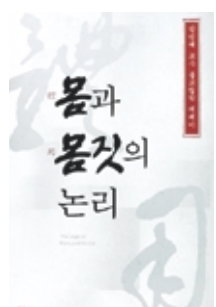
‘고승’에 대한 박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처방전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불교엔 진짜 고승은 사라지고 가짜 고승만 남는 폐종 망교의 위기가 닥쳐 올 것 같은 위기감에 사로잡혀 곤 한다”는 박 교수는 ‘보이는 고승’과 ‘보이지 않는 고승’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즉, 보이는 고승과 보이지 않는 고승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보이는 고승이 꽃이나 잎이면 보이지 않는 고승은 흙속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뿌리는 체이고 잎이나 꽃은 용이다. 오늘날의 불교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잎과 꽃에만 관심을 갖는데서 ‘병’을 불러 들였다는 것이다. 체에 대한 소홀이아말로 용에 대한 일그러진 현상을 낳는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일체중생이 다 고승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연꽃(보이는 고승)’과 연꽃을 키우는 바탕인 ‘진흙(보이지 않는 고승)’을 함께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논리는 재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가에도 해당된다. 연꽃이 되느냐 진흙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흙(체)과 연꽃(용)이 다 함께 작용하는 원리를 인식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대응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몸과 몸짓의 논리》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 지혜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박 교수의 ‘자비심’이다. 중생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사람다움’에서 출발한다. 사람이 곧 부처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몸과 몸짓의 논리 박성배 지음 민음사 | 2만3000원



죽음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라는 것을 알고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맞닥뜨릴 죽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웰빙 열풍이 수그러드니 이제는 웰다잉(well-dying) 바람이 거세다.

쌍계사 승가대 교수 월호 스님이 펴낸 이 책에는 잘 죽는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잘 소개돼 있다. 죽음을 삶에 비추면서 오히려 죽음이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로 존재함을 알려주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는 삶의 지침서이다.

월호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여가’를 선물로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웰다잉을 주제로 한 책을 쓴 것은 출가동기와 관련이 깊다. 스님은 명문사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소위 잘나가는(?)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사람의 죽음을 잇달아 겪으며 ‘생사(生死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까지 마치고도 의문이 풀리지 않자 뒤늦게 출가했다.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내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라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저버릴게 실천하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월호 스님은 “이렇게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법이며 동시에 연젠가 찾아올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후회없는 법”이라고 조언한다.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지음 마음의 숲 | 9500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인류의 진화 깨달음의 진화

“제대로만 본다면, 다 찌그러진 낡은 쓰레기통도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지난해 4월 과학자이자 영적 연구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역자에게 한 말이다.

역자인 백영미씨는 “호킨스 박사의 집을 빠져서리는 고물식탁이 있는 낡은 집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20초에 한번씩 웃음을 터뜨리던 행복감은 다 찌그러진 쓰레기통조차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영적 교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번에 출간한 <호모스피리투스>는 ‘의식혁명’, ‘나의 눈’에 이은 3부작 완결편이다. 호모스피리투스의 특성인 ‘내재와 초월을 넘어 신성의 빛으로 가득한 깨달음의 나, 무한한 나’에 이르는 영적 진리 문답을 담고 있다. 저자는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호모스피리투스 데이비드 R. 호킨스 지음 백영미 옮김 정선세계원 | 1만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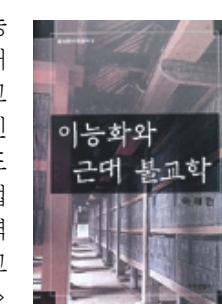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근대불교학의 뿌리찾기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를 살다간 이능화 선생(1869~1943)은 근대 한국학의 거봉이다. 전통 유교집안 출신인 그는 불교에 입문, 최초의 근대적 불교학자인 명진학교 2대 교장으로 불교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교에 대한 그의 큰 업적은 당시의 한국불교를 진보사관과 역사학의 눈높이로 연구해 객관적인 불교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조선불교통사>의 출간이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 불교를 조명해 불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근대 한국 불교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이능화의 불교학이 근대 한국 불교학의 성립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 2장에서는 ‘이능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로서 시대별, 분야별로 연구현황을 정리했으며, 제 3장은 ‘근대 한국불교학 성립의 배경과 과정’으로서 이능화가 근대불교학을 시작하기 이전 불교학의 흐름을 설명해 놓았다.



이능화와 근대 불교학 이재현 지음 지식산업사 | 1만9000원

김주일 기자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 일상

초기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여성의 직접적인 성불을 인정하는 대목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르다.

한국은 불교가 성행하는 나라들 가운데 여성 불자들의 위상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티베트나 태국 같은 불교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 불자의 위치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례적으로 비구니와 비구의 구성비가 8대 2에 이르는 대만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할 지라도 비구니의 수계가 비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불자의 위치는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일단 비구니 수의 비약적인 증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비구니수계식이 비구니장모에 의해 집전될 정도로 그 위상과 독자성이 강화돼 가고 있다.

이 책은 여성 불자들의 위상을 이런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던 많은 비구니선사들의 행적을 밝히면서 한국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수행양상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김성우 지음 전국비구니회 역음 예문서원 | 1만8000원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북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문없는 문, 빛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먼트
4	하루 10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룸미디어
5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통	정도
6	절물 가져갈 때는 법	청견	빛의 마음
7	무비 스님의 신성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8	햇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정경각
9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10	육도에서 법보단경	법지 역주	운주사

출처: 출판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언제나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범문집을 내지 않기로 유명한 활안 큰스님이 최초로 발간을 허락해주신 책. 대중의 무지를 깨우치는 활안 큰스님의 벽력같은 일갈!

활안 대선사 범문 | 김성우 역음 | 양장 | 값 13,500원

우리 시대의 큰 스님 활산성수 대선사와 활안 대선사 선법문집

너희는 절에 뭐하러 가느냐?



저건너 산을 보라

“불법은 저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이 밖에 따로 구하지 마라. 구한 죽고(苦)가 되나니라.”

난해한 선(禪)이 아니라 일상에 뿌리내린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을 확립한 것으로 유명한 성수 큰스님의 춘철살인 명법문집. 활산성수 대선사 범문 | 김성우 해설 | 양장 | 값 15,000원